▣ 그림 여행

제인 세이모어 (Jane Seymour c. 1536)

소 한스 홀바인 (Han Holbein the Younger 1497 - 1543)

(목판에 유채와 템페라 64.8 cm x 40.6 cm
비엔나 쿤스트히스토리히 미술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로 평가받는 독일 화가 소 한스 홀바인의 그림이다. 그림의 주인공은 제인 세이모어, 영국 튜더 왕조 헨리 8세의 세 번째 왕비였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 단절하고 스스로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된 것으로 유명한데, 그 보다 재위 중에 여섯 명의 왕비를 맞아 들였고 그 중 두 명의 왕비를 사형시킨 것으로 더 유명하다.

이 그림의 주인공 제인 세이모어는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비 아라공의 캐더린과 두 번째 왕비 앤 볼린을 모신 궁정 시녀였다.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 카톨릭 교황청과 절연하면서까지 캐더린 왕비와 이혼하고, 아들을 낳지 못 하자 음모를 씌워 앤 볼린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을 그녀는 모두 목격했다. 앤 볼린이 사형 당한지 불과 몇 개월 후에 이 초상화가 그려질 무렵 헨리 8세는 제인 세이모어와 결혼했고, 그로부터 1년 후 그녀는 헨리 8세가 그렇게나 기다리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게 된다. 불행히도 제인 세이모어는 아들 출산 중에 죽고 만다. 헨리 8세는 원하던 아들을 얻었으나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내 진정한 왕비는 오로지 제인 세이모어밖에 없었다' 라고 죽을 때까지 되풀이 말했다 한다.

정확한 사실주의 묘사와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미학적 통찰력으로 유명했던 한스 홀바인은 제인 세이무어를 불필요한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전해진다.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창백하고 정숙해 보이는 얼굴에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차림으로 제인 세이모어의 초상은 귀족 여인의 품위를 보여준다. 푸른 배경에 그녀를 감싸는 오른쪽의 검은 그림자는 그녀의 짧은 운명을 암시하듯 불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 때문에 종교 미술 주문을 잃어 생계가 막막했던 한스 홀바인은 추천서를 들고 영국으로 건너간다. 빼어난 실력으로 2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어 고향 바젤에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집을 사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헨리 8세의 궁정 초상화가가 되어 활동하던 홀바인은 런던에서 흑사병에 걸려 사망하는 바람에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주인공과 화가가 둘 다 불행하게 사망해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처연하게 느껴지는 르네상스 초상화이다.

《김동백》